

오직예수를 증거한 복음의 망대 마가 요한

-복음으로 여는 마가복음-

창세기 3:15, 마가복음 1:21-27

정운문 목사님

*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막1:21-27**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때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평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예배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문제를 통해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과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나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몇 가지 오해를 할 때가 있다. 기독교도 종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배하고 경배할 특권을 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셨다. 인간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인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 또 기독교를 폐쇄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오직 하나님만 믿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나무아미타불 할렐루야 아멘’ 하신다. 반면에 우리는 ‘오직 예수’한다. 고집스럽다. 그래서 잘 알아서 잘 설명하셔야 한다. 우리는 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할까? 왜 ‘오직 예수’일까? ‘오직 예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①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석가모니는 훌륭한 철학자이고 종교인이지만 사탄을 이길 수는 없다. 절에 가면 있는 무서운 사천왕은 귀신, 사탄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걸 만들고 모시고 절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법사님과 친하게 지냈다. 그분이 요새 불교는 기독교라고 하셨다. 원래 석가모니는 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하지 않고 깨달으라 하셨다고 한다. 종교가 아니라 사실 철학이라고 하더라. 모든 종교는 귀신과 사탄, 우상을 섬긴다. 제사도 마찬가지다.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 속이는 것이다.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결국 멸망시킨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세종대왕의 이십 몇 대손이다. 집안이 다들 제사하는데 집안에 온갖 제앙들이 생겨 다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 부인과 자녀에게 문제가 오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계속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면 제앙과 저주가 온다. 아무도 이걸 막을 수 없다. 그 길을 걸어간다. ② 오직 예수님만이 운명, 사주, 팔자, 인생의 제앙과 저주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를 믿는 나라들을 보라. 불교를 믿는 나라를 보고 회교도를 믿는 나라를 보라. 경제, 삶, 인권이 없다. 그래도 과거에 성경적 복음을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 나름대로 자본주의, 인권, 민주주의도 된다. 그러다 복음을 잃으면 또 제앙과 저주, 전쟁이 온다. 이게 챗바퀴처럼 온다. ③ 오직 하나님인 예수님만이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착한 인간이라도 착한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심지어 자기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4대 성인인 공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자

기 죄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이다.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누구나 감사하고 은혜롭다. 오직 하나님 한 가지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나 다른 신을 믿으면 오만가지의 다 믿어야 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게 더 쉬운 길이다. ④ 오직 예수님만이 깊은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제 외할아버지의 막내 여동생은 99세 때 제가 인사드리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다. 그 분이 예수 믿고 무당이 ‘너 예수쟁이지’ 맞추고 ‘너 때문에 신 안 내린다’고 가라 그랬다. 그 뒤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다 응답받았다. 위 무식한 할머니가 그냥 기도했는데 계속 복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흑암, 저주, 가난, 재앙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는 한 순간도 불신앙을 하면 안된다. 정말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돈문제, 장수문제 해결된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셨다. 멋있게 사는 여러 분이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해도 절대 상을 잃게 하지 않으신다. 그 정도 되어야지 현장을 이길 수 있다. 조금 어렵다고 빠지고 섭섭한 수준으로는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 없다. 오직 예수로 끝내는 여러 번 되시기 바란다. 문제 되는 건 딱 하나, 오직 예수 안 하는 것이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게 담겨져 있다. ⑤ 정말로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인생을 살다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게 아무 문제 아니어야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 복음을 정말 알았는데 참지도 못하고 사납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회생도 못 한다. 손해도 못 본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게 복음이다. 손해가 손해 절대 아니다.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니다. 축복의 통로다. 오늘 전해 드릴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예수의 비밀을 알려 주고 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사복음서의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 요한이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베드로의 통역자였다. 베드로를 돕고 배우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활동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의 중심을 이룰 수 있었다. 마가는 마가다락방 장소를 제공한 부모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을 쓴 것에는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기도 덕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후대들이 이 언약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제 부모님, 조부모님, 교회 중직자들의 기도다. 마가도 처음에 실수를 했지만 돌아왔다. 그리고 마가복음서의 내용적인 특징은 말씀의 내용이 간단명료하고 이야기 가 빠르며 전개되고 있고, 예수님의 주요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적고 있다는 것이다. 베드로의 성격과 로마의 교육을 받은 마가 요한의 성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16장으로 내용이 짧지만 가장 명확하게 ‘오직 예수’의 복음과 실제적인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과 대화하는데 대화가 계속 돈다. 3시간을 대화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님을 만나면 간단명료하다. 길이는 없어도 실용적이다. 마가도 로마에서 공부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1.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다. 마가가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을 때 마가는 로마의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마가는 당시 로마유학파이고 엘리트였다.
- (2) 그리고 마가의 히브리적 이름은 요한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를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마리아는 마가다락방의 주인인 마리아이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가 즉, 로마 말로 ‘마르코’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비추이다’라는 의미인 라틴어 ‘마르티우스’에서 파생되었다.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세월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킹’은 원래 그물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뜻한다. 단어의 뜻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이 단어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유래되었다. 그리스어로는 ‘마르스’, 라틴어는 ‘마르코, 마가’다. 원래 마르스는 로마의 첫째 달의 이름이었지만 나중에 1월과 2월이 추가되어 3월 March로 변경되었다. 처음 농한기에는 달력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March’는 여기서 시작이라는 의미의 ‘행진, 행군’의 의미로도 쓰인다. 저는 이걸 보면서 빛이요 새로운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요한’ 또는 ‘예호한’이며, 그 의미는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또는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를 뜻한다.
- (3) 마가 요한의 부모님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마가다락방의 주인이었다. 이 마가다락방은 성인 남자만 약 120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큰집이었다. 마가다락방에서 최초의 예루살렘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다.
- (4) 이로 보아서 마가는 아주 부잣집 자녀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안디옥교회로 소개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사촌이

었다. 개역성경에서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권위 있는 성경에서는 마가 요한과 바나바의 관계를 '사촌'으로 번역하고 있다. 조카보다 사촌일 가능성이 더 크다.

(6) 그런데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팀의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다.

(7)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 마가 요한을 또 함께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툰 후에 각각 나누어 선교를 떠나게 된다. 이때만 해도 마가도 부족했다. 왜 마가가 그만두었을까. 여행길이 부잣집 아들에게 힘드니까, 또는 마가 요한 마음에 자리싸움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면 세상적인 자리 때문에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바나바는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 그 여정이 어려우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따랐다. 바울은 생명 걸지 못하고 힘 빠지게 하는 마가를 데려가지 못 한다고 했다. 다 맞는 말이고 다 틀린 말이다. 전도와 선교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더욱 성숙해지면서 바울도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했다. 바울과 마가, 바나바도 새로 시작했다. 제가 노회를 보면 목사님들 싸우는 게 수준 낮다고 느낄 때가 많다.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감 없이 보여준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8) 마가 요한은 결국에 오직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베드로 사도의 제자로 또한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동역자로 쓰임 받게 되었고

(9) 결국에는 사복음서의 뼈대가 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다. 여러분도 끝까지 변화되어 쓰임 받기를 바란다.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진다. 영적서밋까지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가정의 배경 때문에 교만하고 선교도 지속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거듭나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가 되었다.

2.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로 마가복음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들을 완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 제가 어릴 때는 치유은사를 가진 부흥사가 병 고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나중에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더라. 궁극적으로는 병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했을 때 인간관계와 질병 등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응답받게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더하여 주신다. 아브라함도 은금이 풍부했고 다 응답받았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 용서해도 안 믿는 건 용서하지 못하신다. 구원과 치유와 삶과 모든 것들 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도 사업하고 일을 할 때 안 하고 못하고 힘들다고 하면 사장님은 언제 자를 지만 생각한다. 이유는 많다. 온갖 안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램트들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안되는 이유를 말하면 안된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를 말해야 한다. 저는 예수는 안 믿어도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수 안 믿었는데 왜 응답받는가. 성경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그 길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고 누릴 수 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치유다. 안되는 것을 되게, 불행한 것을 행복하게, 절망을 희망으로, 절대불가능을 가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된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등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불가능한 질병들을 절대가능하신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다. 지금도 걸로 보이지 않지만 문둥병, 중풍병자, 소경이 너무 많다. 여러분이 치유의 땅대가 되어야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치유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영혼, 육신에 있는 심각한 병들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2)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을 보겠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데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2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

간들의 원죄, 자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리고 조상의 죄까지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만약 중풍병자에게 그냥 일어나라고 하면 시비거리가 없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니 신성모독이라고 한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의심했을 수 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와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천국이 가려면 한 가지 죄도 있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다. 그게 왕권이다. 민주주의로는 해결되지 못 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왕권이 있다. 큰 죄를 지어도 왕이 용서하면 끝이다. 시비 걸면 시비 거는 사람이 역적이다. 우리의 죄 사함은 우리의 도덕, 윤리가 아니라 은혜와 왕권으로 용서받은 것이다.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사해 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이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때문에 그 중풍병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셨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다. 임종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가 영접하게 하려고 흑암을 껴는 분이 있다. 어머니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친인척까지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전도와 생명의 땅대다. 이것이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회의 전도사역이다.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는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237, 5천 중풍에 3천 제자, 일천만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300영접, 30다락방, 5인 1조, 70지교회 현장을 지속적으로 세팅해 나가야 하겠다. 이 비밀을 알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땅대가 세워질 것이다.

(3)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보겠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섬기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의 모든 성격과 행동이 다 바뀌어야 한다. 나의 자존심과 기준을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다. 전도 안 하고 못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전도 못 한다. 이유가 그것이다. 한 마디로 섬기는 자세가 안 되면 전도 못 한다.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종과 같이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이때 전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야 할 수 있다. 전도와 사업과 일도 마찬가지다. 교회에 와서 직장의 심부의 일반 해도 좋은 신자가 된다. 사업과 일을 하려면 간, 쓸개 다 내어놔야 한다. 다 내려놓은 자존심이 교회만 오면 다시 생긴다. 정말 전도자가 되시기 바란다. 전도를 위해 모든 사상과 체질과 성격까지 다 바뀌기 바란다. 예수님은 모욕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도 맞고 섬겨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수 없다. 자존심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없다. 자존심을 찢으라는 말이 아니다. 전도와 복음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자존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부심이 생긴다.

오늘은 7.7.7기도 즉,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에서 7망대 기도를 하겠다. 7망대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 3시대, 오력, 공중권세와 우주의 사탄 권세결박, CVDIP, 세 가지 뜯이다.

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②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초월과 237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③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④ 이 시간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⑤ 나에게 시공간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⑥ 미리 보는 CVDIP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세 가지 뜯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마가 요한처럼 오직 예수로 결론 내고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명철에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치유하는 치유의 땅대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복의 근원되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응답과 축복을, 하늘보좌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